

고창 공동주택 올 796세대 입주

기간기업 540여 세대 분양 계획 군, 공급 확대에 생활 여건 개선 부동산·가전업계 경기 회복 기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 고창군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고창 고인들 휴게소 하행선에 서 떡국떡을 나눠주며 고창방문의 해를 홍보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올해 공동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이르면 올 가을부터 고창에 LH임대주택 398호의 입주가 시작되며 고창을 올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128호를 비롯해 고수면 150호, 무장면 120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또 민간기업에서도 공동주택 건설·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에는 고창읍 현대아파트 앞쪽의 광신주택 260호, 터미널 회전교차로 주변의 읍내리 주상복합 56호도 공사를 시작해 바로 선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택 내부공사에 들어간 한동해 도시형 생활주택(리안채 주변)은 6월 준공 후 바로 분양을 시작한다. 여기에 고창읍 덕산리 일원 128호, 흥덕면 흥덕리 일원 152호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민간업체가 군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터미널 일원에도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전국 첫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계획됐다. 최근 2~3년새 관내 아파트 신축이 없었던 만큼 올 한해 고창에서는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이사가 전업계 등의 경기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동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집값 안정을 꾀하고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자와 청년·신혼부부가 고창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군민 행복, 활력 고창'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정 정책 제안 있다면 시민소통실로”

지역 문제 시민과 공동 논의·결정 '시민소통방' 시민 의견 반영 창구 소통위, 계층별·분야별 의견 수렴



염영선(왼쪽) 전북도의회이 정읍시청 시민소통방에서 수성동 도시가스 공급 여부에 대한 민원 업무와 장명동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업무를 청취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서비스 구현에 나섰다. 정읍시는 민선 8기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 운영의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정읍시청 본관 1층에 '시민소통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시민소통실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열린 시장 구현을 위해 이학수 시장이 내건 공약사업이다. 지역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표 정책 창구이자 시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소통과 신뢰의 창구로 대외협력과 자치분권, 공보·홍보·보안·보육을 비롯해 지역민과 접점이 많은 업무를 한 곳에 모았다. 특히 시민소통실 내 설치된 '시민소통방'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까지 수행한다. 또 도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 담당 부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과 시정, 의정을 바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염영선 도의원이 시민소통

방에서 수성동 도시가스 공급 여부에 대한 민원 업무와 장명동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업무 2건을 처리했다. 염영선 의원은 "회기 기간은 도의회에서 업무를 보지만, 비회기 동안은 지역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공간이 필요했다"며 "지역 민원을 잘 처리하라는 시민의 배려와 명령으로 알고 잘 해결해 방값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민토론회 등을 열고,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의견이 시정에

직접 반영되는 시정 운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 계층별·분야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시정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 소통실이 시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가교가 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고충·질의 민원과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교육청, 특화산업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

'직업계고 혁신지구 사업' 공모 도전

전북교육청이 올해 직업계고 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직업계고(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모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고졸인재 성장과 취업·정착을 위한 미래형 직업교육 사업이다. 교육청이 지자체와 대학,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핵심 취지다.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요 추진과제는 ▲직업교육 혁신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고졸 인재 양성 거버넌스 형성 ▲지역·특화산업 분석을 통해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 ▲정주여건 마련 및 직업교육 정책개발 등이 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 사업이 도내 기술인재 역의 유출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 공모사업을 준비해왔다. 도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 늦어도 2월 1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예산(광역단위 10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고졸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현재 전북지역의 경우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50%가 타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등 기술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이 사업이 정착이 된다면 우리지역에 특화된 산업에 맞는 인재육성이 가능해지는 만큼, 기술인재 유출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제고를 통한 취업률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여성농업인 여가 지원 '생생카드' 발급

20~75세 미만 미용실 등 사용



정읍시가 올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을 시작하며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여가 지원에 나선다.

정읍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월28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023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옛 생생바우처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비 6억원을 투입,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75 미만의 여성 농업인이다. 지난해까지는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의 제한을 없애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생생카드는 농협 지점을 통해 발급되며 1인당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관광여행사, 스포츠용품,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수영장, 서점, 사진관, 안경점 등의 료기관과 유흥 및 사행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농부병인 관절염·만성질환 예방 치료와 낙후된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열악한 농업·농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13가구 1억3000만원

남원시가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13가구, 지원액은 총 1억3000만원이다. 대상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약자공과금 및 공동현금시야를 비롯해 LH매입 임대주택 입주계약자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원금 임대보증금 중 본인 부담금인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무이자로 가구당 2000만원 내에서 차등 융자지원한다. 융자기간은 기본 2년에 각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접수하지만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희망자가 남원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시는 대상자를 선정에 지원에 나선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